

공과대학 주관 교환학생 프로그램, 프랑스 생테티엔 에콜데민(EMSE) 후기

전기정보공학부 김승환
교환기간 : 2019.9.9 ~2019.12.19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과대학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생테티엔에 위치한 에콜데민(EMSE)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을 돌아보며 앞으로 교환학생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EMSE에 대해

EMSE(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Saint-Étienne)는 생테티엔(Saint-Etienne)에 위치한 프랑스의 공학 그랑제꼴 입니다. 생테티엔은 프랑스의 제 2도시인 리옹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일부 학과 및 연구소는 프랑스 남부 해변가 도시인 마르세유 주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 가흐단느(Gardanne)에 있습니다. 두 도시 중 선호하는 도시가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생테티엔은 아주 작은 도시이기 때문인지 거의 영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불어를 못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프랑스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프랑스의 공학 그랑제꼴은 공학 교육에 초점을 둔 학교로 종합대학(Universite)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학생을 뽑고 교육 시스템도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대학교의 수업보다는 훨씬 더 실무에 가까운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 학교에는 여러 학교들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그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굉장히 흥미로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으로 지원하신다면 불어로 진행되는 과정(ICM)과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MSC)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은 대부분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과정도 약간 다릅니다. MSC 중 전자공학에 해당하는 Hybrid Electronics의 경우에는 생테티엔이 아닌 가흐단느에서 진행되는 것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과 유사한 Msc Cps2과정을 신청하였습니다. Cps2 과정은 EMSE와 다른 학교들이 공동 설립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Msc는 2년 과정으로 M1, M2 course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교환학생이라 이 중 원하는 수업을 아무거나 들을 수 있다 하여 M1 과정의 수업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M1 과정은 학부 2학년 수준으로 체감되었습니다. 또한 M1 과정은 EMSE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개설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3~40분 거리의 건물에서 수업을 들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EMSE가 아닌 Jean Monnet Universite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전공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지원과정 및 행정 절차

공과대학 대외협력실에 지원하여 선발되셨다면, EMSE에 직접 지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입국 전에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교환학생 비자를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EMSE에서 보내준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하지만 비자에 필요한 다른 서류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학 허가서를 받기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MSE에 제출하는 서류와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겹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필요한 것은 여러장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입학허가를 받게 되면 비자준비를 하시면서 바로 기숙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EMSE와 바로 연결되어있는 기숙사는 ME(Maison de Eleves)이고 대략 4단계의 방 등급이 있습니다. 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하여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방도 없어 곤란하였습니다. 다행히 빈자리가 생겨 이 곳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기숙사 또는 집을 구하게 되시면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나중에 설명드릴 CAF를 받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불어를 잘하신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입학허가서와 비자 이외에도 CVEC이라고 하여, 프랑스 학교에 내야하는 기여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미리 지불하고 오셔야 학교에서 입학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CVEC을 지불하면 다른 비용의 지불 없이 Securite Social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urite Sociale은 프랑스의 의료보험제도로 의료비의 50% 정도를 커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후 임시 건강보험 번호를 받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까지만 한국회사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9월 중순즈음에 Securite Sociale을 신청하여 11월 초즈음에 임시번호를 받았고 2월까지 아직 정식 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임시번호만으로 의료비는 모두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정식 번호를 귀국 후 받게 되면 이를 다시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번거로워 집니다. 이런 과정이 귀찮으시면 그냥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이 없다고 프랑스에서 체류하는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CAF라고 불리는 주거보조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월인 현재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380유로를 월세로 내는데 172유로를 보조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CAF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공인 번역가에게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오셔야 편합니다. 프랑스 법원에서 지정한 번역가가 번역한 것이 아니면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지정한 번역가를 통해 번역 받았고 문제 없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번역받을 경우 7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프랑스 입국 후 파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훨씬 싼걸로 기억합니다. 잘 찾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입국 후에는 OFII라는 장기 체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와는 별개로 체류증을 받으셔야 프랑스 체류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히 OFII는 모두 전산화가 돼서 비교적 손쉽게 인터넷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셔야 하고 통신사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각종 행정처리에 프랑스 은행 계좌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특히 입학절차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Societe Generale이라는 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영어가 안통하는 직원이라 조금 힘들었지만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여 어떻게든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Societe Generale에서 개설 축하금 50유로와 카드 이용료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원래 프랑스 은행에는 신용카드 이용료를 받습니다)EMSE와 Societe Generale이 제휴를 맺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 관련해서 저는 Free Mobile에서 50GB LTE에 전화, 문자 무제한으로 한달에 9유로정도 지불했습니다. 동일 상품이 외국(유럽)에 나갈 경우 한달에 4GB의 데이터와 유럽 내 전화 문자 무제한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Orange등 다른 통신사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비교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프랑스 입국 전후로 필요한 행정처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의 행정은 굉장히 느린 편이라 이 과정이 힘들실 수도 있습니다. 한 학기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은 CAF나 건강보험은 가볍게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프랑스'에서 위의 행정처리들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3. 생활

생테티엔에는 Centre Deux에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작은 아시아 마트도 있어 라면, 젓가락, 일본쌀, 한국 양념 등을 살 수 있습니다. Place Jean Jaures 또는 Hotel de ville 주변이 이곳의 시내에 해당하는 곳으로 각종 식당과 다양한 상점들이 위치합니다. 만약 ME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면 이 둘 주변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장소 모두 EMSE와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ME에 살게 되신다면 무선 공유기를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선 인터넷 포트와 랜선만 주고 무선 인터넷은 각자 알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기숙사 내에는 공동 공간에만 와이파이가 약하게 되고 각자 방에서는 잘 안됩니다. 제 방은 공동 공간이랑 매우 가까워서 가끔 터지기도 했지만 공유기를 안가져와서 힘들었습니다.

ME 주변에는 Carrefour city와 Casino의 두 마트가 있어 굳이 Centre Deux에 가지 않더라도 식료품 등은 충분히 이곳들에서 사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Casino가 더 크기 때문에 제품군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Carrefour city 주변에는 빵집, 정육점, 식료품점, 은행(Societe Generale과 다른 은행 하나) 그리고 우체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을 때는 은행이 공사를 하여 학교 주변 지점까지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 건물까지는 대략 10~15분이 걸리고 CPS2과정이라면 더 먼 건물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20~25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10회권에 약 10유로인 교통권을 트램 정거장의 기계에서 사시거나 정기권(Carte Oura)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매일 학교를 간다면 정기권이 비용면에서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기권은 생테티엔 대중교통 회사인 STA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테티엔은 구글지도로 대중교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Moovit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경로 등을 검색하였습니다.

4. 교류활동

ME에는 MIS라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생 연합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 참여하시면 다양한 교환학생 및 공동석사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불어를 더 잘하고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꼭 MIS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St etienne에는 Student Welcoming Desk가 있어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을 위한 파티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더 영어에 친숙한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프랑스 음식 교육, 미술관 방문, 리옹 방문,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MIS나 Student Welcoming Desk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메일을 통해 공지되기 때문에 메일을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환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적어보았습니다. 1학기의 교환학생 생활은 짧지만 유익하고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또 EMSE에서 많은 점 도와주신 한우석 교수님, 항상 고생하시는 대외협력실 김희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